

동명대·부산불교연합회
상생위한종·학협력

동명대(이사장 강정남)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가 불교문화학과의 발전을 통한 종교와 학교의 상생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단체는 11월 9일 오후 2시 동명대 총장실에서 종합협약 조인식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적극적인 전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의 진흥, 동계대비의 상생적 지역문화 교류 등 살기 좋은 지역 사회 건설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2시 30분부터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불교문화학과 개설보고 및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목종 스님(대광법사 주지)의 고별문 낭독을 시작으로 발전위원장 수락인사, 동명대 이무근 총장의 인사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축하염상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협약한 내용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종·학협력 공동연구 등 6개 조항이다.

박지원 기자

숲길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 치유

7일,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 성료

부처님은 숲길에서 태어나 숲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불교에서 걷는 수행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또한 숲은 나무, 동물, 작은 풀, 흙, 벌레 등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수행처다.

11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와 부산시불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가 초승어린이대공원 산책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부산 전역에 가을비가 올 것이라던 일기예보가 부산 1,500여 사부대중의 신심 앞에 무색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0일 창립 1주년을 맞는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단이 처음 기획한 대외행사로 단순한 걷기대회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가을숲의 정취를 만끽하고 느리게 걷는 속에서 지친 몸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과 마음을 치유하는 야단법석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출발에 앞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설동근 회장의 대회사, 정여 스님(부산시

불교연합회장, 범어사 주지의 격려사,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범어사도명 스님의 기공제 조 시범을 따라하는 준비운동이 이어졌다.

설동근 회장은 "걷기와 명상은 둘이 아닌 하나인 만큼, 일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을 깨끗한 성지국 유원지의 자연 속에서 털어내고 참나를 깨닫는 멋진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여 스님도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원망과 불만들이 있다면 걷기명상을 통해 모두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가을 하늘의 맑고 청정함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격려했다.

홍겨운 폭죽 신호로 시작된 명상 걷기는 1시간여 3.4km 구간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를 따라 이어졌다. 여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환층 깊어진 가을날을 만끽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간식을 먹으며, 사은품 추첨 및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를 즐기며 회향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니존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떠난 바른불교실천포럼 황경환 회장

"생사 해탈위해 불교공부 시작"

"어느 선지식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이 천 코, 만 코가 있지만 정작 고기는 단 한 코에 걸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 책 속 107가지 구절은 흘러간 옛 노래마냥 그저 지나치더라고 그중 단 한 구절이 마치 한 코에 걸려드는 물고기처럼 인연 있는 이에 게 무명의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원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진 황경환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진양유조선 대표)이 사이 불교경전 속 구절과 불교 전반에 관한 철학을 진술하게



황경환 회장.

답아 낸 책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 밖의 108 요담,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도 서출판 풍경소리를 출간해, 11월 11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출판기념회 및 김동길 박사 초청강연회를 병행했다.

이 책에는 '무명의 족쇄를 어떻게 하면 풀어 버릴 것인가?'를 주제로 근본불교 문헌인 <사부니까야> 속 부처님의 초기 음성 에 가장 가까운 경구들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요소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재해석해 깨달음의 과학을 주제로 한 108개의 요담이 담겨져 있다.

"서구의 많은 이론물리학자 및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달음의 3가지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초월성, 카르마의 법칙,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불교의 핵심공식인 사성제가 바로 그것이고, '고(苦)'의 진실에서 불교공부가 시작됩니다."

황경환 회장이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9살 무렵 선전게서 들려준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

밖에 없고, 9살인 너 역시 언젠간 죽는 존재라는 것과 함께 결코 불교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 당부했다고 한다.

"그날 선전의 말씀이 이후 내 삶의 방향이 되었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바에 아직도 스스로 미약함을 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만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30년간 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외교단체 회원으로도 동시 활약하고, 한국본부 총재를 역임했다. 그리고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의 일요법회에 12년간 빠짐없이 동참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미국 뇌과학의 권위자인 김사철 박사를 우연히 만나 명상과 불교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한마음선원장 대광 스님,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립 스님 등 수많은 인생의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벅할 법도 하지만, 그를 지탱해주는 힘은 확고한 신념이다.

"깨달음의 과학이란 주제로 엮은 108요담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보다 내일, 금생보다는 다음 생이, 그리고 고귀한 47가지 진실에 대한 신심과 발심을 더욱 더 가혹하는 이에게 고혹스러운 윤회의 원인이 되는 무명의 족쇄를 풀고 열반이라는 완전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지원 기자

"조상들 1000년 지혜 계승해야 빛 발한다"

한광석 전통염색 명장 초대, 제1회 월례학술발표회 개최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11월 7일 오후 3시 동명불원(주지 정산) 문수당에서 제1회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문화콘텐츠로서의 전통염색'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사)남도문화연구소 이사장 한광석 전통염색 명장을 초대에, 불교문화콘텐츠에서 전통염색의 가능성과 우리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양의 색에 익숙해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알던 색, 보아온 색을 잊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우리 마음을 전통의 청아한 쪽빛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광석 명장은 "전통염색이 돈이 된다고 해 우후죽순으로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지만, 진정한



한광석 전통염색 명장.

전통염색은 1000년 동안 이어온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했을 때 빛을 발한다. 그리고 요즘 주로 하는 대중화·단순화·획일화·단일화를 하는 것은 전통을 죽이는 일이고, 결국 쉽게 만들어서 파는 것은 결국 싸구려일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한 명

장은 "물을 들이는 방법 뿐 아니라 물을 들이는 섬유인 무명, 모시, 삼베만을 이용하는 것 또한 전통을 살리는 일이다. 저렴한 화학섬유와 달리 빈 모시만 1필에 100만원을 호가하고, 전시회 한 번하는데 모시 200필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무명은 대량으로 구입할 곳도 잘 없다. 이러한 인문학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또 향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발표 및 질의응답에 이어 흥승 스님이 진행한 사찰음식의 식탁이 펼쳐졌다.

이번 발표회에는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고창 문수사 선법 스님, 미다선원 주지 하림 스님, 김순향 조각박물관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박지원 기자

'세계불교유물대전' 등 특별전

12월 3일, 2009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개막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우리나라 불교 산업의 보루, 2009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오는 12월 부산시민을 찾아온다.

12월 3~6일 4일간 벡스코 제3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될 이번 팔관회에는 법회, 공연 및 이벤트, 테마 특별전, 불교산업관 등 4가지 테마로 구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폭넓은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먼저 법회부문은 팔관회대법회,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영산재' 특별시연, 다각사 조실 경주 스님 초청 특별강연 등을 병행한다. 그리고 공연 및 이벤트부문으로 전

주비빔밥 전국순회 비빔행사, 천연염색 패션쇼를 마련해 무대공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또, 산업관에서는 전통차, 전통의상, 범종, 선서화, 석재, 사찰음식 등 불교를 주제로 한 산업부스 150여 곳이 입점해, 불교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8개의 테마관에서는 '팔관대장장 특별전' '세계

불교유물대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수상작 특별전' '전통등, 장엄 등 전시회' '세계화해전시회' '부산 불교30년 특별회고전' '금니사경 특별전' '팔관회 홍보관 및 문화체험관' 등 8가지 테마별 특별전이 신설돼 우수한 우리의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예상 관람객이 1일 1만5000명 이상 7만 여에 달할 예정인 만큼 흥승 스님 초청 특별강연 등을 병행한다. 그리고 공연 및 이벤트부문으로 전

주시장 입구에 플루건 게이트를 설치하고 모든 입장객이 통과해 방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보 건소에서 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이상체온을 보이는 사람들은 입장할 수 없다.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부산시불교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무료입장권을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051)867-0501 www.bba.or.kr

박지원 기자

특별한 분들을 위한 참수행 마음유통 (신선이 되는 공부)

참수행 마음유통이란?

참수행이란 수행을 통하여 현세의 삶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음을 무한히 성장시킬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성장할수록 삶의 지혜가 형성되고, 스스로 행복을 쌓아가게 되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육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행입니다.

참수행을 정진하실수 있는 특별한 분은?

1. 현재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전생의 선근공덕)
2. 생활수준이 안정적인 분들(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3. 자신을 향상시켜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베푸는 삶)
4. 현재 CEO와 경영인, 법률,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최고 경영자를 준비하는 사회 중견인, 자영업인 등...
5. 인격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인격완성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의식 수준이 높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법으로 스님분들의 가입을 받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참수행 (마음유통 경영자 과정) 문의 : 02)2269-0813 www.chamsamo.net

서초구 방배1동 901-10 노블레스빌딩 601호 [7호선 내방역(2번출구), 2호선 방배역(4번출구)]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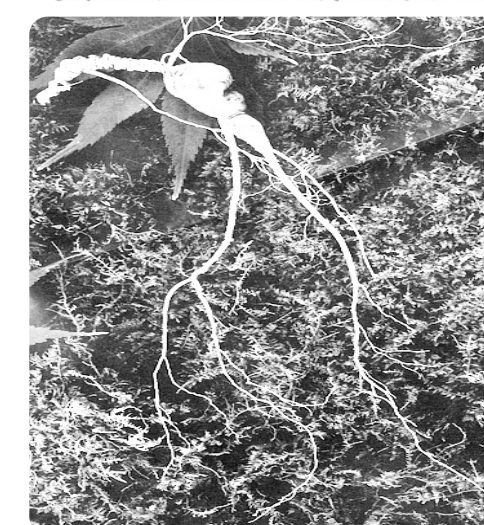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약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부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외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 (분식 51160-150)